

흙살림
HEUKSALIM



필리핀·몽골에 흙살림 기술 퍼진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오른쪽)과 단테 필리핀 ARTISCO사 부사장이 흙살림 친환경농자재 공급 등과 관련한 상호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흙살림친환경농자재 시범농장 등 운영 합의

아시아 농장 곳곳에서 흙살림 친환경농자재가 투입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진다. 흙살림은 지난 2월 3일부터 5일까지 필리핀 현지에서 ARTISCO사와 상호 협력 방안 및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의는 흙살림 농자재를 필리핀에 제품 등록하고 유통을 희망하고 있는 ARTISCO사의 방문요청에 따른 것이다. 양사는 현지 효과실험 및 등록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추후 제품등록을 통한 필리핀 전역에 흙살림 자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벼와 양파 등의 작물을 시작으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초에 필

리핀에서 정식 등록된 흙살림 자재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RTISCO사는 필리핀 바탕가스 지역에 있는 회사로 그 일대에서 대규모 벼농사 및 양파 농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물을 계열사에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번 협의를 담당한 단테(Dante) ARTISCO사 부사장은 필리핀 전 농림부 차관 출신으로 유기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양사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이태근 흙살림 회장이 몽골 울란바토르와 셸레게 지역을 다녀왔다. 지난 연말 방문 이후 두 번째 방문으로 현지 유기농 재배 기술 전수 및 자재

적용 관련 협의차 한국동아시아농업협회와 함께 했다. 현지 업체인 ALTAN TARIA사의 대표인 수렌(TSATSRAL SUREN) 씨는 유기농업에 관심이 높으며, 흙살림의 자재와 기술 등을 몽골 현지에 적용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우선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시험영농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4월 중순경 현지 업체 및 농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및 자재 적용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약 1ha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엽채류·근채류·과채류 등을, 10ha 규모의 노지에 밀·감자·당근·오이 등을 시험 재배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영농이 성공할 경우 보다 넓은 규모의 유기농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흙살림 자재를 현지에서 등록하여 사용 및 판매할 계획이다.

‘흙의 날’ 기념 친환경농업 시농제 개최

3월 11일은 ‘흙의 날’이다. 지난해부터 흙의 소중함과 토양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3월 11일이 흙의 날이 된 것은 3은 '하늘(天)+땅(地)+사람(人)'과 '농업·농촌·농업인', '뿌리고, 기르고, 수확한다'는 복합적 의미를, 11은 한자 10(十)과 1(一)을 합한 '흙(土)'을 뜻하기 때문이다. 흙살림과 (사)충북친환경농


업인연합회는 3월 11일 ‘흙의 날’을 맞아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농업의 의미를 고취하고자 ‘친환경농업 시농제’를 흙살림토종연구소(충북 괴산)에서 개최한다. 시농제에서는 충북도내 각 시군에서 가져온 물과 흙, 종자를 한데 합쳐 밭에 뿌리는 합수, 합토, 합종자 고사를 지낸다. 흙이 물을 머금어 수자원을 모아주고, 생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인간에게는 식량을 제공해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행사다. 흙을 살리는 일이 바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일이며, 농업의 근본을 지키는 일임을 널리 알리는데 그 뜻이 있다. UN도 흙이 인류 생활의 기반이 되고 문명을 융성하게 만든 원동력임을 깨닫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을 ‘세계 토양의 해’로 정한

바 있다. 흙은 이외에도 미생물과 미세곤충들의 터전이 되며 대기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이날 흙살림토종연구소에서는 토양분석을 바탕으로 한 유기재배 시비처방 기술 연구를 위해 함께하는 생산농가들에게 현장농민연구원 위촉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알림
‘흙의 날’ 기념 시농제

- 일시 : 3월 11일 14:00
- 장소 : 흙살림토종연구소(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
- 내용 : 시농제 고사(합수·합토·합종자), 충북 유기농 깃발 올리기, 풍물공연 등
- 주최: 흙살림,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친환경수도용상토 신청하세요!

수도용쌩나라 20L



제품특징 및 효과

- 국내 최초 유기농업용 수도상토
- 다루기 쉬운 준경량 상토
- 탁월한 통기성 및 보수력
- 유기농자재목록공시: 공시3-1-18

사용방법

- 한 포 당 모판 8장 채움 (어린 묘 기준)
- 주문생산 미리 신청받습니다.
-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구입 및 문의전화: 070-4035-4932



지난 2월 10일 흥살림 청주센터에서 유기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연찬회가 열렸다.

“유기농식품 유통·소비 늘리자”

유기농 발전 방안 모색 위한 합동연찬회 열려

‘유기농식품 유통과 소비를 확대해 생산을 늘려보자.’
 지난 2월 10일 흥살림 청주센터에서는 유기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연찬회가 열렸다. 충청북도 유기농산과 직원과 흥살림푸드,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찬회는 2013년 유기농 특화도 선포와 2015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성공개최로 유기농산업의 선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한 중간 점검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유기농산과 직원들과 관련 기관·단체 20여 명은 유

기농식품 소비확대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의를 가졌다. 진필경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유기농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안정적 생산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하였고, 윤성희 흥살림 푸드 대표는 유기농식품 유통에 대한 실태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낙현 유기농산과장은 “이번 연찬회는 유관 기관, 단체와 함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유기농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며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와 연계되는 유기농식품 유통·소비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처** (사)흥살림연구소 | **발행인·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라010-25(1998년 9월 3일) |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전화 043)833-8179·전송 043)833-2959 |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전화 043)216-8179·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전화 043)212-0935·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전화 043)833-5004 | **흥살림연수원**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영천6길 11-1·전화 043)833-5004

호주 NTS사의 토양진단 지침

- 1. 질소 - 불안정한 필수 원소**
 - 대기의 79%는 질소 - 질소고정균에 의해 이용
 - 토양부식에 저장 및 방출, 작물 잔사가 분해되어 작물에 유용한 질소로 전환
 - 판매되는 질소 비료는 작물 생산에 사용되는 질소의 절반 이하
 - 퇴비화할 때 녹색층(질소)과 갈색층(탄소)을 교대로 쌓는 것 기본
 - 토양의 질산태와 암모니아태 질소 각각 20ppm 이 적정, 식물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번성 가능
 - 잎의 암모니아태:질
- 2. 인 - 에너지 원**
 - 시비한 인의 73%는 고정
 - 인 과잉 시 아연, 철, 가리 결핍, 칼슘 흡수 영향
 - 부식산은 가용성 인의 고정을 막는 최상의 도구 - DAP/MAP 100에 수용성 부식산 5 혼합
 - 고정된 인산을 가용화하는 전략은 퇴비, 두과 피복작물, 풀빅산의 이용, 균근균의 도입, 작물 잔사를 분해할 수 있는 셀룰로오스 분해 곰팡이는 고정된 인의 유효도를 늘리는 산 추출물을 방출하므로, 고정된 인을 순환하면서 잔사를 소중한 부식
- 3. 가리 - 스파크 플러그**
 - 줄기 강화 - 식물병의 가장 큰 원인은 가리 불균형, 토마토, 가지, 감자, 고추의 하부엽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갈색 반점은 가리 요구량이 많은 작물에서 가리 결핍에 매우 공통적으로 연결
 - 돈이 되는 미네랄 - 당의 과일, 종자, 괴근으로 이동
 - 필요한 부위(과일 발육, 식물 끝부분 줄기 생육)로 가장 빨리 이동 - 빠진 부위 pH 하락 - 하

과잉질소는 작물의 회복력 감소

산태=3:1 적정 - 이 비율이 역전되면 스트레스와 갈등 유발. 질산태 질소는 병해충의 전화카드이며, 모든 병해충이 파티에 도착하여 전투 시작.
 ○ 질소고정은 폴리브덴에 좌우되는데, 많은 토양에 결핍, 코발트도 중요
 ○ 질소화 효소에 불을 붙이는 ATP를 생성하는 수용성 인의 지속적인 공급도 중요
 ○ 토양에서 고정된 칼슘과 인의 결합을 깨는 산을 방출하는 유용한 곰팡이 중요.
 - 모든 셀룰로오스 분해 곰팡이는 부식 생성과 함께 이런 편익 제공
 - 가장 중요한 것은 균근균 - 호주 토양의 90% 과 흡수 촉진
 부에서 병 발생 - 하부와 상부 엽 K 차이 10% 이하 유지
 ○ 토양의 적정 수준 : 포도, 과수 등 목질 작물의 토양 함량은 일년생 작물의 2배 필요. 가리와 고토 함량(ppm)이 같은 수준이면 식물 흡수에 좋음
 ○ 염화가리는 살균작용, 고염도로 뿌리 세포 탈수 - 황산가리가 이상적
 ○ 밀 종자 채워지는 시기에 ha당 황산가리 6kg, 풀빅산 250g, 트리아콘타놀 50ml 엽면시비로 수량 증가
 자료 : NTS(호주) Soil Therapy 발췌 번역 글 최관호 흥살림 연구위원장

흥살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자가 액비 제조세트



활인산 10L
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시-3-2-33



빛모음 500ml x 2병
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시-3-3-54



생선아미노산 10L
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시-3-2-39



바이오숨 10L
생육밸런스 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시-3-2-34



해초 500ml X 2병
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시-3-2-38



당밀 10L
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



25말(500리터)통
공기 발생기

작토층과 심토층 구별 분명한 토양 최적

약초 유기재배<2> - 인삼(상)

작토층은 사양토나 식양토, 심토층은 점질 강하고 보수력 좋아야



인삼 6년근.



산양삼 8년근.

■기원 : 두릅나무과(오가과 : Araliaceae)에 속한 여러해살이 풀로 인삼 *Panax ginseng* C. A. Meyer의 뿌리로 심고 나서 4~6년 후 가을에 줄기와 잎이 마를 때 캐어 세척 후 햇볕에 말린 것은 백삼이라고 증기로 찌서 건조한 것을 홍삼이라 한다.

■과명 : 두릅나무과

■약재명 : 백삼(세척 후 그대로 말린 것), 홍삼(세척 후 증기로 찌서 말린 것)

■이용부위 : 뿌리

■산지 : 우리나라의 중부지방 및 경기도의 강화, 포천과 충청남북도의 금산, 옥천, 영동 및 경상북도의 풍기, 영주 등 우리나라 각지에서 재배한다. 중국에서는 길림, 요녕, 흑룡강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채취 : 낙엽이 진 가을 또는 짝이 나오기 전인 이른 봄에 뿌리를 캐어 물에 씻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응용 : 인삼의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는 5.22% 들어 있다. 인삼의 사포닌은 용혈작용과 용혈방지작용이 있다. 건위강장 약으로 몸이 약해진 때, 병후회복, 만성질환 등에 2~10g, 많은 양을 쓸 때에는 15~35g을 달여서 먹는다. 영위기혈이 허하고 오장육부가 허약하며 배가 불어나고 입맛이 없으며 구역이 있을 때 인삼, 흰삼주, 솔뿌리혹, 감초를 같은 양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 7g을 물에 달여 마신다(사군자탕). 또한 심장핏줄 계통의 질병에 쓴다. 고혈압, 심장 영양장애, 심장동맥경화, 협심증에도 일정한 치료효과가 있다. 인삼은 위와 간의 질병 치료, 당뇨병 환자의 일반 상태를 좋게 하며 정신병 치료에도 쓴다. 신경쇠약을 치료하는데 쓰며 눈을 밝게 하며 애디슨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쓴다.

■나는 곳에 따른 분류 : 산삼(산에서 절로 자란 삼), 인삼(밭에 심어 재배한 삼), 산양삼(산에 심어 기른 삼. 장뇌삼)으로 나눈다.

■가공 방법에 따른 분류 : 홍삼, 태극삼, 백삼으로 나눈다. 수삼은 수확 후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말하며, 홍삼은 증기로 찌서 말린 것으로 잔뿌리를 제거 후 압착한 것과 잔뿌리 째 말린 원형홍삼이 있다. 태극삼은 수삼을 열탕에 처리하여 표피의 일부만 전분을 호화시켜 만든 것이다. 백삼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피부백삼, 껍질을 벗긴 후 곧게 펴서 말린 직삼, 껍질을 벗긴 후 지근을 둥글게 감아서 말린 반곡삼, 껍질을 벗긴 후 동체를 지근을 말아 붙여 둥그스름한 형태로 만든 곡삼, 잘라버린 잔뿌리를 말린 미삼으로 나눈다.

■ 종자의 특성

○ 인삼 종자의 100립중 : 5.2g



인삼 종자 100립의 크기와 양.



인삼 종자 두께비교.

○ 발아에 적당한 온도는 15°C 이다.

○ 유기농업에서는 합성화학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므로 유기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GMO종자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종자나 묘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기재배 인삼의 종자나 묘삼을 자가 생산하여 증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자를 채종하게 되면 뿌리의 비대가 약 30%정도 줄어든다(정 등, 2010)고 하여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채종을 하지 않고 적예(꽃술 따기)를 실시하며 관행재배 인삼의 종자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개갑(씨눈 튀우기) : 인삼은 과육이 완전히 빨갱거나 노랗게 변해서 수확을 하더

라도 종자의 모든 유전 정보를 지니고 있는 배(쌀의 씨눈에 해당)는 아직 미숙상태이다.

한편, 종자의 휴면에 크게 관여하는 내생 Abscisic acid (ABA) 함량은 내과피 및 과육이 종자보다 각각 1.4 및 4.5배 높다. 따라서 개갑처리 전 과육을 제일 먼저 제거를 해야 한다. 수확한 인삼 종자의 과육을 제거 하더라도 매우 두껍고 딱딱한 종피가 종자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인삼 종자는 발아 환경이 갖추어져도 발아하지 못한다. 이런 종자를 일정기간동안 저온 습윤한 조건에 두는 후숙처리를 하면 배가 신장하면서 미숙 종자의 종피가 갈라져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개갑 또는 씨눈 튀우기라고 한다.

인삼종자는 파종 전 100일 정도(7월중·하순~10월하순)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개갑과정 없이 파종할 경우 늦게는 18개월에서 3~4년 이후에 출아된다고 한다.

○ 종자 구입 : 종자를 직접 자가 채종하여 개갑하여도 되지만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면 10월 중·하순에 개갑된 종자를 인삼재배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파종하면 된다. 종자는 인삼재배농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재배 환경

○ 토양 : 비옥도는 중간정도, 작토층의 깊이는 50cm

내외, 작토층은 배수가 잘되는 사양토나 식양토가 좋으며 심토층은 점질이 강하고 보수력이 좋으며 작토층과 심토층의 구별이 분명한 토양이 좋다. 지세는 평탄지 또는 북향이나 동북향의 완경사지로서 북쪽에 높은 산이나 방풍물이 없이 넓게 트인 곳이 좋다.

○ 기후 : 여름 평균기온이 20~25°C 로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 좋다.

○ 지역 :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요즘 시도되고 있는 하우스재배는 지대가 높거나 여름 기온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 예정지 선정 : 인삼을 재배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인삼 재배지의 확보이다. 화학농약으로 병방제를 할 수 없는 유기농 재배에서는 병발생이 적은 초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러나 요즘은 초작지가 부족하여 논에서 재배하는 논(답전윤환지)재배가 늘고 있다. 논(답전윤환지) 재배의 경우 주변에서 농약의 비산 등 오염의 위험이 없는 토양을 선정해야 한다. 최적 예정지는 수분이 부족하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동북향의 완경사지가 좋다. <계속> 글 임진수 박사(흙살림연구소) ※보다 자세한 사항은 흙살림홈페이지(www.heuksalim.or.kr)를 참고하세요.

HEUKSALIM

흙살림 매장 안내

HEUKSALIM

HEUKSALIM 26년 유기농을 이어온 친환경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통해 가족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대전

HEUKSALIM

세종

HEUKSALIM

청주

HEUKSALIM

HEUKSALIM 노은점(흙이 주는 선물)
 대전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33번길 5
 경남아너스빌2 103호
 전화 : 042-823-8179

HEUKSALIM 세종점(흙이 주는 선물)
 세종시 노을로 16 상가동 129-2호
 (첫마을 1단지 정문 맞은편)
 전화 : 044-866-8179

HEUKSALIM 울량점(청풍명월 매장 내)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천북로 153
 청풍명월 1층 매장 내
 전화 : 043-241-6464

가맹점 문의

043-212-0935
010-5458-7683

추천지역 : 대전, 세종, 천안, 청주 기타 충청권역

HEUKSALIM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043-212-0935 www.heuksalim.com / shop.heuksalim.com

휴살림 안전성분석안내(공인분석기관)

휴살림 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잔류농약(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항목
	다성분	320항목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유해8성분, 염분, 수분, 부숙도, 염산불용해물, 질소, 인산, 가리, pH, EC	
토양이화학(시비처방서 포함)	질산태질소, 유기물, pH, EC, CEC, 유효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규산	
GMO	콩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쌀, 현미 품종검사	정성	멤쌀
	정량	멤쌀
		참쌀
미생물	일반미생물	
	병원성미생물	

※분석비와 분석기간은 별도합의 ·입금처 : 농협 301-0170-6536-31 (주)휴살림



- 잔류농약 : 연경호 070-4035-4958, 010-5243-7194
- 일반 및 병원성 미생물 : 정난숙 070-4035-4659, 010-8761-9641
- 중금속 및 퇴비, GMO, 쌀현미품종, 토양이화학 : 민중기 070-4035-4958

미생물 배양 배지종균 공급합니다

제품구성

- 휴살림 바실러스 배지와 종균(등록번호 제 AA6ET0001호)
- 휴살림 유산균 배지와 종균(등록번호 제 AA6ET0002호)
- 휴살림 효모 배지와 종균(등록번호 제 AA6ET0003호)
- 휴살림 광합성배지와 종균(등록번호 제 AA6ET0004호)
- 휴살림 방선균 배지와 종균(등록번호 제 AA6ET0005호)

제품 특징 및 효과

- 26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 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제품

배양 구입 상담

- 양병근 박사 070-4035-4658 010-2889-0668



휴살림 유기농 인삼 기술상담

유기농 인삼재배 정말 어렵죠?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임진수 박사님에게 유기농 인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상담하세요.

기술상담

- 휴살림 연구소 임진수 박사 043-833-5004 010-5366-3225



전작물 오이 잔사, 토양에 혼입 후 담수

흙살림은 지난해부터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토양분석을 바탕으로 유기재배 시비처방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다. 유기재배 농가의 토양 이화학특성과 비료 및 시비량 차이를 분석하고, 유기자재의 N, P, K 함량 및 시계열(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관측된 관측값의 계열) 분해특성을 조사·분석 중이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의 시비처방에 있어 유기자재 시비량 계산법을 개발하고, 녹비의 종류 및 생산량에 따른 N, P, K 투입량의 계산법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흙살림은 이 과정을 지면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힘쓰고 있는 농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유기재배 시비 처방 기술 연구 과정

- 충남 아산 방울토마토 농가
 - 오이 전작+방울토마토 후작
 - 전작물 오이는 6월말 수확완료
 - 오이 잔사 토양에 혼입 후 물 담수 후 자연 건조시킴
 - 정식후 2일마다 관수, 열매 달기 시작하면 매일 아침 관수함
 - 매일 아침 관수시 흙살림액비세트 액 100리터, 양지뜰액 200리터, BM수 100리터 혼용
 - 흙향은 청고병 방제약임
 - 퀵엠지는 1주일에 1회, 1포(10kg)를 물에 녹여서 관수시 혼용함
 - 열매가 다 달리고나서 부터는 물을 끊음. 10월말~11월 초 임
 - 11월말~12월 초에 수확하고 작기 끝남.

■ 토양 분석 결과(2016년)

구분	pH (1:5)	유기물 (g/kg)	유효인산 (mg/kg)	치환성양이온(cmol+/kg)			전기전도도 (dS/m)
				칼륨	칼슘	마그네슘	
토양 분석결과	6.4	62	1106	2.18	13.8	6.4	10.0



방울토마토 생육 모습.



농가에서 직접 제조한 액비.

■ 방울토마토 재배력(2016년)

품종	묘 종류	육묘 시기 (기간)	식재 본수 (평당)	정식 시기	정식전 토양 관리			사용 유기물				관수시기, 방법	병충해 (방제횟수)	수확 예정 시기	전년도 생산량 (kg/10a)	연작/연수	시험포면적/(총재배면적)
					전작물	토양 관리	녹비	종류	사용량(kg/평당)	기비/추비	사용시기						
대추 방울	실생	45	7	7월 27일	오이	잔사 혼입	옥수수	양지들	0.9	기비	7.19	매일 10톤, 아침 관수	4회 청벌레, 굴파리	10월말~		2	1동 130평(6동 800평)
								흙향	0.08	기비	7.19						
								트리코마 입제	0.19	기비	7.19						
오이 심기 전 사용 유기물								흙나라골드	4.5	기비(전면살포)	15.12.20						
								양지들	2.2	기비(두둑살포)	15.12.20						
								코코피트	11.5	기비	15.12.20						
추비								균배양체	2.4	추비(두둑살포)							
								흙살림액비세트	100리터	매일(관수시)							
								양지들	200리터	매일(관수시)							
								BM수	100리터	매일(관수시)							
							퀵엠지	1주일 1회	관수시 1주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친환경농업농가의 참여로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축산물, 유기식품, 취급자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간결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희망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10-8 은산빌딩204호(각리640-3)

전화 043-212-0934 전송 070-8677-3320

홈페이지 www.kafc.kr 이메일 admin@kafc.kr



토종돼지 농가조합서 생산자조합 성장

독일 · 오스트리아 농업 탐방기 연재 순서

- ① 독일의 농업정책: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는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다
- ② 농업과 원예의 모든 것: 바덴주립 원예연구소
- ③ 부가가치 높이는 농가가공품 성공사례1: 피르호너호프 제빵농가 외
- ④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가가공품 성공사례2: 카이젠호프 육우농가 외
-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살펜텐 농민직판장 · 슈베비쉬할 농민조합**
- ⑥ 도전하면 성공하리라: 니더탄하이머 과수농가
- ⑦ 일상과 함께 하는 농업과 원예: 칼스루에 클라인가르텐

8 농가서 시작해 1450명 조합원 … 지역 경제 활성화

■ 성공한 농사의 조건은 ‘잘 파는 것’

성공한 농사의 조건이란 무엇일까. 농사를 잘 지어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많이 수확하는 것.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풍성하게 거둬들인 수확물을 잘 파는 것. 농산물과 농가가공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팔려야 비로소 성공한 농사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거래가 활발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가 높은 유럽에서는 농산물의 판로 걱정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EU 농업정책 변화의 흐름 속에 농민과 농업 또한 시장경제의 파도에 휩쓸리면서 연합 국가 간의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그 결과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는 농업 분야가 아니면 인근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었다. 소규모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업도 마찬가지이다. 고작 소 열 두어 마리를 키우는 알프스 산악지대의 소농들이 네델란드의 대규모 낙농농가와 과연 경쟁이 될까. 이 질문에 너무도 당연하지만 누구나

하기는 힘든 대답을 내놓는 곳들이 있다. ‘혼자서 맞서기 힘들다면 주위의 동료와 힘을 모아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네 속담이 이토록 어울리는 곳을 만나 면 유럽의 시골에서 만날 수 있었다.

■ 모두가 농민의 편이 되어주는 곳 ‘살펜텐 농민직판장’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된다. 생산자가 제대로 된 생산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소비 또한 이뤄질 수 없다. 이는 곧 경제순환의 단절을 야기하고 쉽게 말해 돈이 돌지 않아 너도 나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유명 관광지 레오강 인근의 작은 마을 살펜텐에서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의 상공인들이 힘을 모았다. 이 지역 주요 소비자인 농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지역 상공인들이 직판장을 만든 것이다. 벌써 지역의 유명 상점이 된 이 농민직판장은 30여 농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농가들은 모두 생산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농산물을 비롯하여 육가공품, 유제품 등의 가공품과 수공예품으로 전부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것

들이다. 이러한 생산품을 대형 마켓에 판매하면 유통수수료가 40~50%에 이르지만 직판장에서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18% 정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직거래라고 해서 제품들의 판매가가 일반 마켓보다 더 저렴하진 않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유기농으로 당일 생산한 신선한 제품을 팔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좋은 품질로 지역 슈퍼마켓이나 베이커리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물론 주요 고객인 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직판장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지 인근이라는 특성상 무분별한 외부 자본이 유입되어 지역의 원주민들이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살펜텐에는 적어도 그런 ‘그들만의 세상’은 없다. 농민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역할로 관광객을 모으고 관광객들의 소비로 먹고 사는 지역의 상공인들은 농민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 아름다운 협력이 지속 되는 한 살펜텐의 농민에게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 농민이 지역을 살리다 ‘슈베비쉬할 생산자조합’



‘슈베비쉬할리스’라는 품종의 독일 토종 돼지.

지역이 힘을 모아 농민을 돕는 살펜텐과 반대로 농민조합이 지역을 살려 낸 경우도 있다. 독일의 유명농업전문학교가 있는 호엔로에 지역의 작은 도시 슈베비쉬할. 이곳에는 ‘슈베비쉬할리스’라는 품종의 토종 돼지가 있다. 이 돼지는 오직 이 지역에만 있는 토종 품종으로 특유의 생김새와 맛으로 유명하다. 한 때 토종 품종 홀대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었지만 조합의 창시자 ‘루돌프 뷔러’와 함께 한 여덟 농가의 노력으로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처음에는 품종의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돼지 사육 농가만 조합에 참여했지만 점점 다양한 작목의 농가가 참여하면서 현재 1,450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규모 생산자 조합이 되었다. 이 조합의 목표는 지역이 가진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역토종품종돼지와 발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도 참여 농가는 증가하고 있으며 조합에 납품하면 일반 시장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회원 농가에게 납품받은 생산물은 호엔로에 농민시장이라는 직판장에서 판매한다. 이 직판장은 판매장과 허브가든, 베이커리, 지역 여행사, 약국, 유아놀이터, 태양광발전소 등의 복합시설로 구성되어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한다. 또한 조합에서 키운 돼지를 가공하기 위해 도축장 및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민의 기술 지도를 위한 조직도 별도로 운영한다. 조합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직판장 외에 독일 남부의 350여 개 유기농 전문매장에 공급할 정도로 유통 규모도 상당하다. 그야말로 지역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모든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의 호텔과 레스토랑, 기업체에 공급되고 지역민들이 이 곳들을 이용하면서 경제가 순환된다. 시작은 지역의 돼지를 살리기 위한 작은 모임이었으나 결국 지역 전체를 돌아가게 하는 거대한 발전차가 되었다.

■ 잘 팔기 위한 협력

농사의 성공은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만이 아닌 그 결과를 잘 파는 것에서 판가름난다. 수확까지가 농민의 영역이라면 판매에는 시장과 소비자, 정책의 힘이 함께 더해진다. 이에 대응하기에는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시장의 규모에 걸 맞는 대응을 위해서는 농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농민조합이 생겨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농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농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농민을 포함한 지역 구성원들의 협력이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살펜텐과 독일의 슈베비쉬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농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야 지역 경제 또한 제대로 순환될 수 있다.

농사의 성공은 농민만이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농민 또한 지역사회의 소비자가 되어 지역 경제를 순환시킨다. 또한 농민조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성공한 농사는 곧 마을을 성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국 잘 팔기 위한 협력은 농민과 소비자,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글 송지은(농자재사업부)



호엔로에 지역의 농민시장.

생산된 과일 60%는 관광객이 수확

일본의 6차산업-히라타 관광농원

히라타는 해발 450~500m의 산 정상과 계곡 등에 조성된 15ha의 면적에서 포도, 딸기, 사과, 매실, 일본 배, 서양 배, 복숭아, 자두, 밤 등 20여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관광농원이다. 연간 매출액은 약 60억원에 이르고 연간 관광객이 10만 명으로 매년 20% 씩 증가한다고 한다. 1985년 설립 당시에는 연간관광객이 1만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 200톤 과일을 직판

히라타 관광농원에서는 200여톤의 각종 과일을 생산한다. 생산한 과일의 60%는 관광객이 1인당 입장료 18,000원(딸기)에서 7,000원(사과)을 내고 수확해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30%는 택배 등으로 판매하고, 10%는 잼과 주스 등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 농장에서는 또 100석 규모의 양식과 일식 음식점도 연중 운영한다. 사실상 생산 전량을 직매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형태가 일본에서 말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라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에서 끝나던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일본 농업계의 주장이다.

히라타씨는 1962년 돗토리 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곧바로 나가노 현 농업 시험장과 히로시마 현 과수 시험장에서 포도 연구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23년간 계속했다.

1984년 히라타씨는 부친이 경영하고 있던 사과 농장과 인접한 농사 조합법인의 포도 농장(약 10ha)이 고령화 등으로 경영이 악화하여 도산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고향으로부터 히로시마 현의 과수 시험장 연구원인 히라타 씨가 포도 농장의 경영을 맡아 다시 일으켜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그는 중견 연구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으나 ‘연구원은 다른 사람이 맡아도 되지만 고향의 농업을 부활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또 ‘본래 자신이 좋아 농업을 전공했으니 농업 이외의 사람에게도 농업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사과 농장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의 포도 농장 경영을 인계받아 1985년 유한회사 히라타 관광농원을 설립했다.

■ 젊은이에게 매력 있는 농업
히라타 씨는 농원 설립과 동시에 농원 운영의 기본 이념을 분명히 했다. ‘첫째, 농업을 평생 직업으로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농원이어야 한다. 둘째, 젊은이들이 농업을 직업으로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농원이어야 한다. 셋째, 농업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창설해야 한다. 넷째, 농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교육장 역할의 농원이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종합적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농원이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히라타 사장은 농업이 평생 직업으로서 손색이없음을 실증적으로보여주고 있다. 히라타 사장은 관광농원 설립 당시에는 사과와 포도만을 재배했으나, 과수 연구자로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연중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했다. 그는 경영을 착실히 해서 돈을 벌고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밤, 자두, 복숭아, 앵두, 서양 배 등을 심었으며 계속해서 과수 종류를 늘려갔다.

최종적으로 2001년에 돌담 딸기 재배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겨울에도 수확 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방문객은 계절과 관계없이 농작물 수확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1월~3월에는 딸기, 4~5월은 양앵두, 5~6월은 자두와 복숭아, 6~7월은 포도, 8~9월은 포도와 배, 10~11월은 밤과 사과, 12월은 딸기와 서양 배 등의 수확 체험이 가능하도록 품목과 품종을 배치했다.

■ 연중 볼거리 있는 관광농원

관광농원 안에 있는 고급 양식 음식점 <마루메로>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데 뷔페 요리와 함께 피아노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옛날 민가를 옮겨 지은 일본 요리 식당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채소와 관광농원에서 수확한 과일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요리해서 판매하는 식당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관광농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연중



히라타 관광농원의 사과 따기 체험.

손님이 끊이지 않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포도밭 페스티벌도 개최한다. 자연 속에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캠프 활동을 통해서 예술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을 즐기자는 것이다. 축세공예와 각종 농작업 체험도 한다. 이곳에서는 연간 3,000여 명이 농작업 체험을 한다.

벚나무 ‘소유주제’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1,000명이

■농업도 리스크 관리

히라타 관광농원에서는 주력 품목인 포도의 농번기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면기나 생육 초기부터 불필요한 잔가지나 꽃눈을 남기지 않고 전정과 꽃눈 관리를 한다. 그 결과 10a 당 총 노동시간이 <피오네> 품종의 경우 현의 지표는 492시간인데 이 농장에서는 178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이외에도 농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방법인데, 다품목 소량 생산 방침으로 20여 품종을 시기별, 장소별로 분산 배치하여 재배한다.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둘째, 태풍이 오기 전인 8~9월에 전체 매출액의 80%는 달성될 수 있도록 작목을 배치한다. 셋째, 등외품이나 태풍으로 낙과된 과일도 잼 등으로 가공해서 판매한다.

넷째, 매년 통계조사를 통해 어떤 작목을 관광객이 선호하는지 파악하여 고객 요구에 맞추어 작목 배치를 한다. 최근 통계를 보면 매년 사과와 포도의 수확 체험 고객은 감소하고, 딸기와 양앵두의 수확 체험은 20%씩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 시설 규모에 알맞게 관광객이 분산해서 연중 고루 올 수 있도록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매년 새롭게 창조한다. 주차장의 차량 수용 면적은 200대인데, 이를 초과한 고객이 오면 불편을 주게

되고 다음에는 찾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등나무꽃이 5월 연휴 때에 맞춰 개화하도록 온도 조절을 하기도 한다.

■ 적극적인 농업 후계자 양성
농업후계자 양성에도 소홀하지 않고 있다.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는 산업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유명한 농장에 가면 반드시 후계 농민 양성 과정을 두고 있다.

히라타 관광농원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프랑스로부터 누계 28명의 해외 연수생을 받았고, 농업 취업을 목적으로 8명을 연수시켜 실제로 4명이 독자적으로 농장을 개설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 학습과 공무원이나 기업의 사원 연수를 위해 찾는 인원도 연간 3,000명이나 된다.

또 자금이나 경험 부족, 농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농업에 뜻을 두고 있으나 취농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관광농원에 취직시켜서 자금과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게 되면 주변 지역이주와 함께 취농하여 농촌에 정착하므로 히라타 관광농원은 산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히라타 사장은 “원폭 돔이 있는 히로시마 시의 관광객은 과거 10년 동안 25%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농산촌 지역의 관광객은 300% 이상 증가했다”면서 농업 관광의 장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었다.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마친 히라타 사장은 “21세기는 농업의 시대이고, 농산촌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것을 반드시 실증해 보이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글 현의송 흠살림 고문

30%는 택배, 10%는 가공해서 판매
연중 계절과 상관없이 수확체험 가능
피아노 콘서트, 포도밭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체험으로 소비자 유혹

다. 졸업식, 생일, 결혼식 등의 기념으로 벚나무를 심도록 하고 관리비로 10만원을 받는다. 그 벚나무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거나 꽃 구경을 하기 위해 4인 가족이 1년에 평균 두 번은 찾아온다. 단순히 생각해서, 벚꽃 때문에 8,000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한 사람이 3만원씩을 소비하면 연간 2억 4,000만원의 매출액이 창출된다는 계산이다.

히라타 사장은 연구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저농약 재배에 의한 안전한 과일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다양한 과일을 연중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수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포장을 철저히 관찰하고, 이러한 예찰을 근거로 농약 살포 횟수를 최대한 억제한다. 포도의 경우 농약 살포 횟수가 지역 표준은 11회이지만 이 농장에서는 4회면 충분하다.

민고 쓸 수 있는 흙살림 친환경 농자재 구입 문의 080-333-8179 http://shop.heuksalim.com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자재

흙살림 균배양체 20kg



퇴비
공시등재번호
공시-3-3-152
농협계통
특등급 퇴비

■ 원료 또는 성분 : 미강, 버섯폐배지, 아주까리유박, 석회고토, 토양미생물제제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7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배추, 고추, 무, 파, 배	정식 2주 전 토양혼화처리	600kg /10a

■ 특징
- 배추의 생육 및 토양 내 유용미생물의 밀도가 증가됨
- 공장식 가축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고급 원료로 제조
- 가축분퇴비 대비 높은 질소, 인산, 가리 함유
- 높은 미생물 밀도로 탁월한 토양개량 및 발효능력

흙나라 유박 골드 20kg



혼합유박
공시등재번호
공시-3-3-115
농협계통
유기질비료

■ 원료 또는 성분 : 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미강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브로콜리, 배추, 부추, 방울토마토, 고추	정식 전 토양혼화처리	300kg /10a

■ 특징
- 양질의 유기물 최적조합으로 토양의 물리, 화학성 개선
- 높은 유기태 질소, 인산, 가리 함량으로 양질의 영양 공급
- 맛, 색깔, 당도, 신선도 등 품질 향상에 효과적

흙나라 골드 10kg



토양미생물제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3-102

■ 원료 또는 성분 : 미생물(*Bacillus subtilis*), 아주까리유박, 미강, 톱밥, 부엽토, 숯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브로콜리, 배추, 부추, 방울토마토, 고추	정식 전 토양혼화처리	300kg /10a

■ 특징
- 인삼 생육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 첨가
- 토양에 부족하기 쉬운 유기물을 높이고 염류토양을 개량시켜주는 유용미생물 밀도가 높음.
- 염류 축적 없이 예정지 유기물 분해를 촉진시켜 건강한 토양으로 개량효과 탁월

흙이랑 뿌리랑 8kg



미생물+점토광물
공시등재번호
공시-3-1-73

■ 원료 또는 성분 : 방선균(*Streptomyces*)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파, 배추, 상추, 무, 시금치	정식 전 토양혼화처리	5kg /150평

■ 특징
-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길항 방선균이 함유된 토양개량용 미생물제
- 사용하기 간편한 입상 형태의 제제
- 기계 살포 가능, 유실이나 주유성분의 용탈이 적음
- 높은 양이온치환용량(CEC)을 가지고 있는 제오라이트 원료

흙살림 골드 2kg/5kg/10kg



토양미생물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1-65

■ 원료 또는 성분 : 미생물(*Bacillus subtilis*), 제올라이트, 미강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2 충북대 농과대학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고추, 오이, 상추, 브로콜리, 무	정식 2주 전 토양혼화처리	1.5kg /10a

■ 특징
- 오이의 생육 및 토양 내 유용미생물의 밀도가 증가됨
- 길항미생물을 고밀도로 배양한 복합미생물 배양체
- 퇴비 발효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
- 토양 미생물상 개선으로 작물 생육에 도움

생명토 8kg



토양미생물제

■ 원료 또는 성분 : 미생물(*Bacillus subtilis*), 제올라이트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 하우스 태양열 처리, 인산염 토양개선, 수도작 토양개선: 유기물, 퇴비와 토양혼화처리 10kg/10a

■ 특징
- 연작장애 및 인산염 개선용 고온성 미생물, 인산활성화균 함유
- 친환경 토양관리, 하우스 태양열 처리, 인산염 분해, 뿌리발근과 가스제거, 토양 안정화에 도움
- 양질의 유기물 및 부식(완숙 퇴비)공급에 효과적

미라클K 20kg



천연가리
공시등재번호
공시 1-3-271

■ 원료 또는 성분 : 장석100%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상추, 배추, 오이, 고추, 콩	정식 후 엽면시비	200배 희석 살포
무	정식 전 토양 혼화처리	120kg/10a

■ 특징
- 국내 광산에서 채광한 천연가리장석
- 다공질 구조로 비효를 높여 토양개량에 효과적
- 희토류 포함 다량의 천연미네랄 함유
- 작물의 품질 향상 및 뿌리 생육 촉진

원예용 싹나라 50L



원예용상토
공시등재번호
공시-3-2-37

■ 원료 또는 성분 : 코코피트, 제올라이트, 질석, 펄라이트, 구아노, 부식산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고추, 오이,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	육묘시	육묘상 처리

■ 특징
- 육묘 시 육묘의 생육이 촉진되며, 비해가 없음
- 원예작물 육묘에 알맞게 물리적, 이화학적으로 제조
- 모종의 성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종 천연 영양성분이 알맞게 배합되어 친환경 육묘재배에 최적
- 통기성, 보수성, 보비력이 뛰어난 친환경 상토

26년 전통의 휴살림 친환경 농자재

구입 문의 080-333-8179
http://shop.heuksalim.com

● 작물생육용자재

활인산 1L/10L



토양미생물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2-33

■ 원료 또는 성분 : *Lactobacillus fermentum*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무, 고추, 오이, 토마토, 배추, 파	7일 간격 엽면살포	500배 희석액

- 특징
- 무의 생육이 증가됨
 - 토양 내 각종 양분을 분해하여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비료로 전환시켜 토양양분을 활성화 및 염류장해 개선효과
 - 천연유기산에 의해 비료의 흡수율을 증대 및 액비발효 촉진

빛모음 500ml



토양미생물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3-54

■ 원료 또는 성분 : *Rhodospseudomonas palustris*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9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배추, 상추, 토마토, 파, 무	7일 간격 토양관주 처리	500배 희석액

- 특징
- 무의 둘레길이 및 지하부 생체중이 증가됨
 - 국내 최초로 등록된 광합성 미생물 제제
 - 토양 내 유해가스와 염류를 제거하여 뿌리 발육을 촉진
 - 각종 생리활성물질을 생산하여 작물의 품질과 생육을 촉진
 - 고밀도 순수종균 제품

휴살림 바이오숨 1L/10L



패화석+천일염
공시등재번호 공시-3-2-34

■ 원료 또는 성분 : 패화석, 천일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배추,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오이	7일 간격 엽면살포	200배 희석액

- 특징
- 우리나라 전통의 세라믹 비법의 응용, 적용한 혁신적 제품
 - 기능성 물질과 원적외선 방사, 천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작물 체내 유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의 대사를 촉진

잎나라 500ml



아미노산제
공시등재번호
공시-3-2-36

■ 원료 또는 성분 : 혈액농축액, 해조추출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전 작물	7일~15일 간격 엽면살포, 관주	1,000배 희석액 1~2병 관주/300평

- 특징
- 아미노산 함량 50%, 질소 8% 인 추비용 아미노산 액상제
 - 유기농업에 사용가능한 혈액농축액 및 해조추출물 원료로 효소분해 등을 통해 가공
 - 풍부한 아미노산과 양분으로 작물에 영양을 공급, 생육촉진 및 품질개선 효과
 - 친환경 목록공시 6월 등재 예정/ 공시 전까지 회원전용

● 작물생육용자재

휴살림 해초 리퀴드 500ml



아미노산+해조추출물
공시등재번호
공시-3-2-38

■ 원료 또는 성분 : 해조추출물, 동물부산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15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배추, 상추, 양배추, 무, 오이, 시금치	작물 정식 후 엽면살포	1000배 희석액

- 특징
- 무의 둘레길이 및 지하부 생체중이 증가됨
 - 천연의 식물생장호르몬과 60종 이상의 미량요소, 17종 이상의 아미노산 및 킬레이트제를 함유하여 발근 촉진, 비대 촉진 등에 효과
 - 냉해와 상해, 식물의 스트레스를 경감해 주면 품질 향상, 저장성을 향상

● 작물 충해 및 병해 관리용자재

잘잡아(토양처리용) 5kg



식물추출물+식물성오일
공시등재번호
공시-3-5-15

■ 원료 또는 성분 : 회화나무, 멸구슬나무, 양명아주, 계피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배추, 상추, 무, 시금치	정식 전	5kg/150평

- 특징
- 살충성분이 함유된 천연 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만든 토양살충제
 - 토양 내 서식하는 해충에 효과적
 - 입제형태로 사용이 간편함
 - 휴살림 자재 중 입상자재와 혼용이 가능합니다.

잎살림 1L/10L



미생물제제

■ 원료 또는 성분 : *Bacillus subtilis* JKK238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적용 병해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딸기	흰가루병	발병 초 7일 간격	100배 희석액
오미자	흰가루병	심화 시 3일 간격	
벼	도열병		

- 특징
- 곰팡이병 방제 효과
 -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생성, 작물병 예방, 방제
 - 항균펩타이드 생산 미생물 균주, 농촌진흥청 특허 균주

토리 250g



미생물제제
공시등재번호
공시-2-4-58

■ 원료 또는 성분 : *Trichoderma harzianum* YCA59

■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08 충북대 산학협력단 시험성적)

작물명	사용시기 및 방법	사용량
상추, 오이, 들깨, 배추, 시금치, 버미나리	생육기 엽면시비	100배 희석액 살포

- 특징
- 유해식물병원균을 억제하는 토착미생물
 - 잿빛곰팡이, 탄저병, 균핵병, 잎곰팡이, 모잘록병, 녹병 등 주요 토양 및 공기 전염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
 - 종자침지 또는 상토혼합처리로 병저항성을 유도
 - 작물병 발생 억제와 생육 촉진효과로 수확량이 증가

신제품 소개 - 고농도 수용성 아미노산 **유기N16**



- 제품 용량: 500g
- 자재의 구분: 작물생육용
- 주요 성분: 생선부산물, 효소
- 목록공시: 공시-3-2-57

아미노산 함량 95% 이상, 질소 16% 함유

■ 제품특징

1. 어류부산물에서 추출한 고농도 수용성 아미노산입니다.
2. 아미노산 함량 95% 이상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높은 질소 함량(16%)과 인산(5% 이상)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엽록소를 생성하고 뿌리 발육을 촉진하는 글리신과 알라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프롤린과 글루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뿌리발육을 촉진하는 아르기닌과 아스팜산을 다량함유하고 있습니다.
7. 미세분말로 물에 잘 녹고 응고물이 생기지 않아 사용이 편리합니다.
8. '천연가리 미라클K'와 함께 사용 시 질소, 인산, 가리 등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1. 육묘 시에는 1,000배 희석액을 4~5일 간격으로 살포합니다.
2. 1,000배 희석액을 엽면 살포합니다.
3. 추비 시 10a(300평)에 1~2봉 관주합니다.

친환경 상토로 육묘 시 추비관리는 필수

육묘 15~20일 전후부터 시작하는 추비관리는 육묘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유기농업용 상토에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 화학습윤제 등 화학합성물질이 일체 들어 있지 않다. 때문에 특히 건조하기 쉽고 병해충, 영양부족으로 인한 생육

부진이 발생하기 쉬워 육묘시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관리가 필수적이다. 기존의 전통 방식에서는 모판 놓을 자리의 흙에 최소 10일 전부터 균배양체를 평 당 1kg 섞어 놓는다. 그러나 비닐을 깔아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구멍이 거의 없는 모판 상자에

는 효과가 없을뿐더러 정식 전 판을 떼어낼 때 포트 밖으로 뺀어 엉긴 잔뿌리를 뜯어내야 해 불편하다. 이렇게 불편했던 기존의 방식 대신 친환경 액비를 이용하여 추비하면 쉽고 간편하게 육묘의 생육관리가 가능하다.

추 비 관 리



<앞나라>

- 풍부한 아미노산(50%)과 속효성 질소
- 생육 촉진 및 냉해 예방
- 1,000배 액 살포



사용전(벼) 사용후



무처리구(상추) 처리구

병 해 관 리



<앞살림>

- 항균에 효과적인 미생물농약
- 벼잎도열병, 흰가루병 방제
- 50배 액 살포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 실험



토리 배지 실험



토리 뿌리 비교



<토리>

- 탁월한 길항미생물인 방선균
- 육묘 시 병 억제, 저항성 강화
- 1,000배 액 살포

품 질 관 리



<빛모음>

- 토양유용미생물
- 뿌리발육 촉진
- 500배 액 살포



빛모음 뿌리 생육 비교



<바이오숨>

- 냉해예방, 작물 스트레스 저감
- 양분흡수 촉진
- 500배 액 살포



바이오숨 고추 생육 비교
왼쪽부터 무처리, 500배액, 250배액

“충주서 감귤 키우기, 신나는 도전이죠”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우수 생산자 충주 이한출·천윤옥 부부

‘충주에 레드향과 황금향이 자라고 있다고?’ 충주시 용두동의 하우스 안. 눈 앞에 보이는 풍경을 의심해본다. 제주도에서나 보던 나무들이 푸르름을 뽐내고 있다. 한라봉을 교잡한 감귤인 레드향과 황금향이다. 어떻게 충주에서 이런 감귤류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그 품질을 인정받아 올해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우수 생산자 농가로 선정됐다.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출, 천윤옥 부부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 ‘집에서 키워볼까’로 시작
“처음엔 그냥 집에서 직접 키워 먹어볼 생각으로 제주도에서 몇 그루 얻어다 심어봤죠.” 이한출 부부는 원래 방울토마토를 재배해왔다. 물론 지금도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다. 방울토마토를 잘 키우다 보니 제주도에서 관심있는 농가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워갔고, 그 뒤로 제주도를 오가며 기술교류를 갖게 됐다. 그러다 문득 농가에서 자주 접하게 된 레드향과 황금향을 직접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 그런데 이 나무들이 하우스에서 잘 자라지 뭐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배해보기로 마음먹었죠.” 2009년부터 조그맣게 시작했던 레드향 농사가 이젠 거의 6,300㎡(1,900여평)에 이른다.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다. 엽채류와 토마토만 키우다 과수를 재배하려다 보니 나무의 성질을 잘 몰라 힘들었다. 그래도 제주도 농부들과의 꾸준한 기술교류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갔다. 또 20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경험도 큰 도움이 됐다.

■ 작물별 맞춤 퇴비
“나무는 엽채나 과채보다 저

질소 퇴비를 좋아해요.” 이한출 부부는 농사를 지어오면서 줄곧 퇴비를 직접 만들어 써왔다. 레드향을 키우기 위해서는 퇴비제조법도 달리했다. 우드칩의 30% 정도 분량의 쌀겨와 계분을 섞어 미생물을 넣고 6개월간 발효시켜 사용한다. 1년에 두 번 정도 만들고, 퇴비를 3.3㎡당 25kg 정도 사용한다. 1년에 한 번은 인산을 공급한다. 인산 원석에 마이너스 이온토와 미생물을 섞고 발효시켜 사용한다. 마이너스 이온토는 거름과 비료 성분을 머금고 있어 양분의 꾸준한 공급에 좋다고 한다. 수확이 끝나고 나서 3.3㎡당 10kg 정도 공급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 수막과 열풍기로 온도를 조절하고 있다. 여름엔 고온피해를 막기 위해 환풍기를 작동시킨다. 최근엔 나노선을 설치했다. 나노선 자체가 열을 내고 살균, 살충 작용을 한다고 해서 사용 중이다.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야 무 탈 없이 수확을 거둘 때 만큼 기쁜 일도 없어요.” 농부의 정성이 ‘설마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지어버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글 이방현 기자



이한출·천윤옥 부부가 올해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우수생산자 농장에 지정된 것을 알리는 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정작업(오른쪽사진)을 하고 난 후 잘려진 가지와 잎은 그대로 땅에 투입된다.

유기농 도시농업용 신제품

텃밭자재

상자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채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빠짐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상자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휴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잎살림S
작물에 튼튼하게! - 잎나라
작물에 생기를!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래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밭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휴살림

휴살림 농산물 3만원 이상 주문 시 무료배송

상품문의 및 주문전화 : 043-212-0935

쇼핑몰주문 : shop.heuksalim.com



봄이 깨어나는 계절 채소류

- | | | | | |
|--|--|--|---|---|
|  <p>무농약
NON PESTICIDE
농림축산식품부</p> |  <p>무농약
표고버섯
500g</p> |  <p>무농약
애호박</p> |  |  |
| <p>휴살림 무농약 느타리 200g
1,500원</p> | <p>무농약 표고버섯 500g
10,900원</p> | <p>무농약 애호박 1ea
2,600원</p> | <p>친환경 봄동 300g
1,900원</p> | <p>무농약 얼갈이 500g
1,500원</p> |
|  <p>무농약
브로콜리</p> |  |  |  |  |
| <p>무농약 브로콜리1개
3,600원</p> | <p>친환경 적상추 150g
2,000원</p> | <p>친환경 청양고추 100g
3,000원</p> | <p>친환경 오이고추 150g
3,000원</p> | <p>친환경 대파 300g
2,000원</p> |
|  <p>무농약
양파</p> |  <p>친환경
무 (1ea)</p> |  <p>친환경
파프리카</p> |  |  <p>친환경
간양배추
1ea</p> |
| <p>무농약 양파 1kg
2,100원</p> | <p>친환경 무 800g
1,500원</p> | <p>친환경 파프리카(1ea)
3,000원</p> | <p>시금치 200g
3,600원</p> | <p>친환경 간양배추 1ea
1,900원</p> |

과일 영양소로 **나른한 봄날 극복 프로젝트**



친환경 사과 4~6입/봉
7,800원



친환경 배(3~4입/팩)
6,500원



무농약 그린키위(1kg)
5,800원



유기농 한라봉 1kg
6,800원



무농약 흑토마토 3kg
18,800원



무농약 토마토 3kg
18,800원



친환경 대추방울토마토 1kg
7,000원



무농약 주스용토마토 3kg
13,900원



저탄소 사과 2.5kg
13,000원



유기농국산냉동블루베리 500g
12,500원

지글지글
휴살림 국민분노조절 프로젝트

국민들의 화가 끓는 소리같나요?
옆집 삼겹살 굽는 소리입니다. 분노로 가득찼던 겨울이 지나가네요.
3월 정국도, 우리 마음도 봄이 오길 기다리며,
무항생제 삼겹살 (목살)로 기분을 다스려보세요.

무항생제 삼겹살(또는 목살) 400gX2팩
친환경모듬쌈 300g
친환경 깐마늘 100g
친환경 새송이버섯 300g
친환경 풋고추 150g
친환경 깻잎 30장
친환경 양파 1~2입

**매주 화요일 자정(24시) 마감
목요일 출고**

무항생제 삼겹살세트
39,700원



1등급 무항생제삼겹살 400g
9,900원



1등급 무항생제 목살 400g
9,500원



친환경 모듬쌈 300g
3,000원



무농약 깐마늘 1kg
14,500원



무농약 모듬버섯 150g
3,500원



유기농 표고버섯 슬라이스 100g
1,600원

“손주들에게 휴살림꾸러미 먹여요”

꾸러미 칭찬 릴레이<1>

이병일 서울대 명예교수

“좋은 건 널리 알려져 함께 나누어야죠!”

이병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휴살림꾸러미를 신청해 손주들에게 보내주고 있다. 할아버지의 가족 사랑을 휴살림꾸러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기도 수원시 당수동에서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블루베리협회 전 회장이기도 하며, 현재 충북마이스터 대학에서 블루베리 재배법을 강의하고 있다. 농사 전문가의 눈길로 보았을 때도 휴살림꾸러미가

매우 흡족한 것이다. 휴살림꾸러미는 매주 또는 격주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로 공급해주는 상품이다. 생활·채소·알찬·과일 꾸러미 등 용도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마치 시골에 사는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먹을 것을 보내듯 정성을 담았다. 이병일 교수가 손주들에게 보내는 꾸러미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교수는 휴살림에 한가지 당부했다. “꾸러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병일 서울대 명예교수(왼쪽 두번째)가 휴살림을 방문해 꾸러미 유통과정을 견학하였다

이 중요하다.” 휴살림은 꾸러미를 포함해 휴살림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잔류농약분석을 포함해 GMO검사 등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아무 문제가 없어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한 농산물을 정성을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린다.

3월 생활꾸러미 예정 품목

3월 1주차	
품목	단위
오리훈제	1팩
무쌈	1봉
양상추	1봉
어린잎채소	1봉
고구마쫄득이	1봉
달래	1봉
양파	1봉

3월 2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딸기잼	1봉
치아바타빵	1봉
양배추	1통
숙	1봉
취나물	1봉
파프리카	1봉

3월 3주차	
품목	단위
도토리묵	1팩
미나리	1봉
당근	1봉
간메추리알	1봉
모듬버섯	1팩
청경채	1봉
모듬쌈	1봉
찰수수	1봉

3월 4주차	
품목	단위
유정란	10알
두부	1팩
어수리나물	1봉
두릅	1봉
참나물	1봉
콩나물	1봉
오이	1봉

※ 품목과 단위 내용은 산지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휴살림연구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친환경농업기술 정보지 제작, 토종씨앗보존 및 전파 등 우리 휴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 쓰일 것입니다.

문의 :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51-0763-0949-03.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가림다마을영농조합, 강명임, 강사영, 강승희,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권택기, 권혁수, 김광부, 김규운, 김기연, 김나원, 김남운,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기, 김생수, 김수철, 김영권, 김영란, 김영철, 김원섭, 김정곤, 김성승, 김종현, 김준배, 김종상, 김홍대, 김해숙, 나기창, 나중연, 도명수, 라병현, 라양채, 라영환, 류훈희, 민병용, 민성기, 박기활, 박동윤, 박래훈, 박미숙, 박미영,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안필, 박영구, 박의준,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원, 박종화, 박준순, 반명수, 방미진, 방영식, 배동환,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백은숙, 서성내, 서순악,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성운제, 송기봉, 송동홍, 송미선, 송영환, 송인훈, 송정호, 송지은, 신문수, 신언관, 신종하, 신치영, 신현식, 심민보, 심상준, 심정섭, 안용호, 안정택, 양병근, 어해용, 염선업, 오과칠, 오복수, 오영세, 원희성, 우범기, 우중서, 육종식, 윤국현, 윤성희, 윤슬기, 이기출, 이명순, 이명환, 이민재, 이병오, 이봉휘, 이성원, 이수일, 이연호, 이영희, 이완호, 이일웅, 이재형, 이정필, 이종국, 이준규, 이재원, 이철민, 이태근, 이필규, 이향순, 임동영, 임원택, 임형락, 장동철, 장명숙, 장세규, 장소애, 장희성, 전흥탁, 정구홍, 정규원, 정규태,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방현, 정석조, 정쌍은, 정우창, 정은, 정인숙, 정정신, 정창환, 정청천, 조기진, 조복남, 조솔, 조원희, 조중기, 주윤식, 진필경, 천세윤, 천호균, 최경주, 최관호, 최금열, 최병국, 최서연, 최재학, 최춘식, 편용길, 한인성, 한정화, 함유경, 허상오, 허현옥, 홍석민, 홍승면, 홍용기, 홍종윤, 황대호, 황서영

■ 2월 휴살림 주요 활동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3~5일	필리핀	협약		ARTISCO사와 협력 방안 및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협의
6일	청주	워크숍	50	휴살림 직원 워크숍
8일	청주	견학	3	베트남 영사, 그린텍 비전 대표 방문
9~12일	몽골	협약		유기농 재배 기술 전수 및 자재 적용 관련 협의
10일	청주	행사	20	유기농업 발전 모색을 위한 합동연찬회
15일	청주	감사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감사
17일	청주	총회	40	충청북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회
23일	청주	이사회	25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이사회 및 총회



**이제 장보러 가지 마세요
꾸러미하세요**

• 꾸러미 상담/주문전화 :
043-212-0935
shop.heuksalim.com

꾸러미란 어머니가 싸주시던 보따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직거래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철 농산물이 매주 배달됩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꾸러미로 편안하게 받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1주일 먹거리가 택배로 배달됩니다.

알찬꾸러미

월4회 12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의 무항생제 방사유청란, 우리콩 두부 등 필수 생활꾸러미와 과일 2~3종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생활꾸러미

월4회 100,000원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유청란, 우리콩 두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채소꾸러미

월4회 60,000원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꾸러미로, 유기농 무농약 채소로만 구성됩니다.

• 발송 : 매주 화요일



과일꾸러미

월2회 80,000원

국내산 친환경 과일로,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제철과일의 맛과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발송 : 매주 수요일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 인증

춘분(春分), 봄별의 큰 사랑을 보라!

절기의 지혜를 배운다

춘분은 24절기의 네 번째로 3월 20일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던 태양이 올라오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때입니다. 비유컨대 멀리 남쪽으로 간 별이 푸른 풀을 뜯으며 흰 젖을 가득 채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별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겨울을 이겨낸 생명들을 찾아 일일이 젖을 물립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초록 잎과 꽃을 피웁니다. 자연의 이 놀라운 기억력, 생각해 보면 그 하나하나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의 따뜻한 허가/ 사알짝,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갯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짜갈짜갈 소리날 듯/ 온통 보석조각으로 반짝”(고재중 「성숙」에서)인다는 것!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아, 봄이구나’라고 말하며 자연의 ‘믿음직한 사랑’을 느낍니다. 작년 늦은 가을날, 별은 생명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겨우내 잘 비우고 생명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돌아와 젖을 줄 테니.’ 그리고 생명들은 지금 그 착한 입을 열고 이 역년의 약속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은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표정처럼 밝습니다. 시인은 이런 믿음직한 사랑을 다음처럼 노래합니다.

봄의 줄락

- 도종환

모과나무 꽃순이 나무껍질을 열고 나오려고 속에서 입을 움질움질거리는데 바라보다 봄이 따뜻한 부리로 툭툭 쪼며 지나간다/
봄의 줄락/
금이 간 봉오리마다 좁쌀 알만한 몸을 내미는 꽃들 앵두나무 자두나무 산벚나무 꽃들 몸을 비틀며 알에서 깨어나오는 걸 바라본다/
내일은 부활절//

시골 교회 낡은 자주색 지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저녁 햇살이 몸을 풀고 앉아 하루 종일 자기가 일한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봄별의 손끝은 정말 정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위력으로 열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다가가서는 각자에게 맞는 정교한 손끝으로 각자의 생을 엮습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마치 모든 공이 겨울을 이기고 나온 그 생명체에게 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엮습니다. “나무껍질을 열고 나오려고 속에서 입을 움질움질거리는데” 그 생명적 노력(알에서 나오려는 병아리가 보내는 소리를 ‘줄락’)이 오롯해졌을 때 “봄이 따뜻한 부리로 툭툭” 쪼아주는(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날 시기를 알고 어미닭이 껍

질을 쪼는 것을 ‘탁啄’) 것입니다. 그 순간 “금이 간 봉오리마다 좁쌀알만한 몸을 내미는 꽃들”입니다. 이것이 겨울을 이기고 열리는 부활로서의 봄입니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말도 자연에서는 살려는 노력이 극에 달할 때 터뜨림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외부적인 힘에 의해 거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맘때쯤에는 괴산시장이나 목도장에도 모종들이 한자리를 차지합니다. 흙살림농장 육묘동에도 밭에 심을 무지무지 많은 작물들의 모종이 잠들고 눈뜩니다. 초록 사랑으로! 글 오철수(시인, 문학평론가, 흙살림농장농부)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비 개인 아침

비 개인 아침, 사과를 깎고 잘라 익힌 것 한접시가 아침상에 올랐습니다. 뉴스에 사과 배 값이 폭락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사과 배는 색깔이 지나고 나면 대량으로 판매할 기회가 없어 일반소비에 기대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넘치니 대체과일도 흔하게 팔아져서 저등급으로 줄기만 과일 색깔이 마땅치 않습니다. 품질이지만 보폭이 수가 없습니다. 사과와 자몽류도 다르지 않지요? 사탕도 초저가품을 만든다는 소식이 보가워 지는 경이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삽니다.

대신택 배가 유기농업을 지원합니다.

www.ds3211.co.kr

- 대신티물류개발(주) 물류연구 개발 및 건설, 시설유지보수 관리
- 대신티복합물류(주) 무역 유통, 복합운송 주선
- 대신티국제운송(주) 미국, 유럽, 아시아 국제화물 운송
- 대신티정기화물(주) 국내택배서비스, 노선(정기)화물운송, 제3자물류



대신티 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우암동 327-6)

TEL. 고객센터실 043)222-4582

FAX. 고객센터실 043)255-3220

영업부 043)256-3211~5

영업부 043)256-3220

대표번호 043)255-3211

대표번호 043)256-3220



휴살림은 생산에서부터 연구·교육·유통·정책·철학까지
농민들과 함께 유기농업을 만들어갑니다!



친환경농자재 취급·대리점 모집

친환경퇴비, 유박, 상토, 토양개량제, 미생물제, 액비
병충해방제제, 차광제, 도시원예자재 취급

문의전화: 043-216-2958

경기, 강원, 충북 담당: 신현식, 조복남
충남, 경상, 전라 담당: 박종수, 안정택

전자우편: heukbio@heuksalim.com

